

영암왕인문화축제로 트렌디한 관광 나온다

영암군, 고유 문화 담은 세가지 컨셉 50여 종 판매 예정 다음달 28~31일 왕인문화축제...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영암군과 영암문화관광재단(대표 전고필)이, 다음달 28~31일로 예정된 '2024 왕인문화축제' 기간에 관광굿즈(GOODS)를 판매한다. 영암관광굿즈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 요소를 형상화한 상품으로, 축제도시 영암 이미지 강화, 왕인문화축제 위상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개발되고 있다. 왕인문화축제에서 '아웃도어' '벚꽃' '영암 캐릭터' 세 가지를 컨셉으로 예코백, 손수건, 반팔티, 티셔츠, 키링 등 약 50종이 판매될 예정이다. 특히, 민선 8기 영암군이 개발해 홍보에 나선 캐릭터인 '납생이' '달빛' '월출산'이 굿즈로

제작·판매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납생이는 월출산 깃대종이고, 민선 8기 영암군은 '달빛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월출산은 예부터 영암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여서 '혁신영암'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캐릭터들이다. 영암군은 왕인문화축제 이외에도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된 '달빛축제' 등 각종 행사와 여러 가게에서도 영암관광굿즈를 판매해 관광 수입원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관광굿즈 판매 경험을 축적해 새로운 기념품 개발도 꾸준히 이어가며 차별화된 콘텐츠로 영암 관광을 이끌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다양한 수요를 겨냥해 개



발한 관광굿즈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성공사례처럼 새롭고 참신한 영암의 이미지를 관광굿즈로 알리고,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목포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 한 달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전남도와 목포시가 힘을 모아 청년의 문화향유와 자기발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5만원 증액되어 연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목포시이며 2022년 3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19세~28세(1996년~2005년 출생자) 청년이다. 다만 복지포인트를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방 청소년 교육수당 지급대상자,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는 사업에서 제외되고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3만원을 제외한 12만 원만 지급된다. 지난해에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를 지원받은 대상자도 올해 사업 자격요건에 맞으면 매년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기존의 발급 카드로 자동 충전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광주은행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4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5월 중 지원금 지급이 진행된다. 사용은 올 연말까지 가능하며 공연관람, 학원수강, 도서관 입 등 전남도 내에서 문화 여가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목포=송준표 기자

"난향으로 봄을 깨우다" 신안군, 3월 9~10일 춘란전시

신안군은 오는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암태도 신안국민체육센터에서 '제13회 1004섬 춘란전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시장에는 신안 난 연합회 회원들이 정성으로 배양해 출품한 150여 점의 춘란(화예품)들이 대상(군수상)을 포함한 30점의 으뜸상을

두고 경합을 벌인다. 전시회에서는 회원 간 춘란재배 정보교류와 친목 도모의 장이 되고 춘란구매도 가능하다. 또 농산물판매장에서는 신안의 천일염, 김, 젓갈류 등 다양한 농수산 가공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전시를 주관하고 있는 '신안 난 연합회'는 지난 2008년 4개의 난우회를 중심으로 '제1회 신안섬드리 난 연합전시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현재는 7개 난우회로 성장시켜 '1004섬 춘란 전시회'를 꾸준히 개최해 오고 있다. 신안군은 해양성기후의 귀귀 자생식물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 매년 1004섬 춘란전시, 전국 새우란 대전, 전국 새우란 축제, 여름 새우란 전시, 대한민국 자생란 대전 등 다양한 자생

식물 전시행사를 열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은 보름달, 천운소, 연등, 살구 등 전국 애란인들이 부러워하는 명품란의 자생지로서 다양한 자생란 전시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존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난 문화를 누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이덕주 기자



무안군오승우미술관, 2024년 첫 기획전 개최

무안군오승우미술관은 오는 5월 5일까지 2024년 첫 기획전 '전통, 잇다 가로지르다'를 개최한다. 지난 24일에 개최된 이번 기획전은 7명의 작가를 초대하여 무안의 도예작품과 진경산수, 문자도의 전통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 1부, 2부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1부는 '천년의 감성'이라는 주제로 김두석, 김천일, 박정규 등 지역작가를 초대하여 서남해안의 독특한 지형과 문화로부터 태동한 진

경산수와 무안 분청 도예 작품을 들여다본다. 2부에서는 '그림이 된 문자-문자도'라는 주제로 박수경, 손동현, 이진경, 흥인숙 작가들을 통해 문자가 지니고 있는 오랜 역사, 상징적 전통과 교감하면서 독특하고도 다양하게 표현된 문자도를 감상할 수 있다. 전시 관람료는 무료로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문의는 무안군오승우미술관(061-450-5482)으로 하면 된다. 무안=이기성 기자

함평군, 영농철 대비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 64개 마을 대상...농기계 수리 및 안전교육 실시

함평군에서 농철을 앞두고 관내 9개 읍·면을 순회하는 농기계 안전사용 현장 농기계 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농기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오지마을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금년 64개 마을을 대상 280명에 대해 25회에 걸쳐 농기계 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27일 신광면 수정마을을 시작으로 수리 여건이 열악한 마을을 순회하며 경운기, 예취기 동력살포기 등 농기계 전 농기계를 수리·점검한다. 아울러 농기계의 올바른 사용 요령, 고장 시 응급조치 요령 등 주민들의 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함께 추진하고, 이동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여 마을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 애



로사향 해소와 영농복지 민원서비스를 시행한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전점검 불량으로 인해 작업 중에 고장이 발생하는 사례와 영농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여 적기 영농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준 기자

영광군, 떡 상품 개발 시험장 구축을 위한 시설 견학 추진

영광군은 최근 (사)영광에서모시실업승을만드는사람들과 함께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명품모시식품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고 떡 제조 자동화 라인 견학을 통하여 '미래농업자원육성센터' 떡 상품 개발 시험장 설비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명품모시식품 영농조합법인'은 2022년에 모시떡 제조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여 작업자의 물리적 부담을 줄여주며 제품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이번 시설 견학을 통해 '모시떡 제조 자동화 장비'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영광군 미래농업자원육성센터 떡 상품 개발 시험장 설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떡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에 적용할 수 있는 공동 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영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유자)는 미래농업자원육성센터 설립을 위해 2023년 12월 미래농업자원육성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다. 영광=서희권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